

2026년도 제1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총평

- o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o 회의일시 : 2026. 9. 21(월) 14:00
- o 회의장소 : 아르코 미술관 3층 세미나실

2026년도 제1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에는 초연 25작품, 재연 17작품으로 총 42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의는 예심과 본심의 2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작품의 예술성 6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 40%를 기준으로 심의하였다. 작품의 완성도와 예술성, 창의성과 참신성을 기본으로 하되, 아창제가 개별 작품의 우열을 가리는 작곡 콩쿠르를 넘어 여러 창작곡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고 우리 창작음악의 현재를 보여주는 기획연주회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공연에서의 구현 가능성과 음악적 전달력, 작품들의 다양성, 청중과 만나는 음악으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참여한 모든 작곡가들의 노력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국악관현악이라는 쉽지 않은 매체 안에서 각자의 음악적 언어를 고민하고 작품으로 완성해 출품한 과정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선정 여부를 떠나 이번 작품들이 앞으로 또 다른 창작과 연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로 다른 성향과 개성을 가진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음향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한편, 그러한 시도가 실제 국악관현악의 소리 안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게 구현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특히 국악관현악으로 연주하는 음악으로서의 당위성, 국악기가 가진 고유한 울림과 미적 가치, 전통음악의 내재적 논리를 작품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어법을 넘어 새로운 관현악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에 대한 기대도 제시되었다.

악보에 기록된 음악과 실제 연주에서 들리는 음악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음향 증폭을 배제했을 때 작곡가가 의도한 음향과 실제 무대에서 들리는 결과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실연을 염두에 둔 보다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특정 소재나 장단에 편중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작품, 그리고 한 번의 공연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악단에서 지속적으로 연주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작품들이 실제 공연 현장과 만나 국악관현악의 레퍼토리로 축적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이 실제 공연을 통해 충분히 다듬어지고 각 작품의 음악적 개성이 청중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 참여한 모든 작곡가들의 고민과 노력이 이후의 창작으로 이어지고, ARKO한국창작음악제가 작곡가와 연주자, 청중이 새로운 국악관현악 작품을 함께 만나는 장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제1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심의위원 일동